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신년 기자회견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창조마을 조성사업 뇌물비리도 '창조적' ▶6

kwangju.co.kr

새해 달라지는 것들 ▶9

제19645호 1판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음력 11월 2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효석·윤장현 위원장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광주역에 들어서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분열의 강물에 다시 밭 담가선 안돼"

추미애 의원 광주 간담회

"安영남서 가능성 보여야"

민주 광주시당 安 비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광주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세월이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 주요 인사와 광주시당은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안철수 신당'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분열의 강물에 두 번 다시 밭을 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안철수 신당이 거론되는 것은 민주당(아권)의 10년간 분열의 업보다"며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분열을 한 뒤 통합하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2,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호남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파괴력을 보고 지지를 표할 것"이라며 "(안철수 신당은) 영남에서 먼저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야권이 분열위기에 있는 것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체 변화 노력을 충분히 한 뒤 분열은 안 된다고 말하는



"원칙주의를 내세우면서 힘겨루기와 겹박의 정치를 한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며 노자의 자고능용(慈故能勇·자애심이 두터우면 자연히 용기가 생긴다)을 인용한 뒤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낡은 세력이란 공안통치, 불통통치로 정국을 마비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칭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안 의원의 낡은 세력 발언은 호남에서 태어나 지난 60여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과 호남정치를 지켜온 23만 광주 당원 등에게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낡은 세력이란 공안통치, 불통통치로 정국을 마비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칭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안 의원의 낡은 세력 발언은 호남에서 태어나 지난 60여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과 호남정치를 지켜온 23만 광주 당원 등에게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호남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파괴력을 보고 지지를 표할 것"이라며 "(안철수 신당은) 영남에서 먼저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것이 옳다"며 "민주당이 자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안철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의원은 "로마제국이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루아침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광주 1000여명 '철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철도파업 노사 실무교섭 재개...열차 불편·물류난 가중

철도노조파업 18일째인 26일 노사가 극적으로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조계종도·철도문화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광주 시민단체 등 1000여명(경찰 출동)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호남권 결의대회'를 갖고 동

성주행 논란을 의식한 듯 여경 60명을 배치해 만악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박태민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머무는 조계사를 찾아 철도노조 관계자들과 약 30분간 만남을 가진 뒤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서 노사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박수석부위원장 피신과 관련,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문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용희기자 kimyh@

安 "호남 낡은 체제 청산은 시대적 요구"

광주서 새정추 설명회...민주당에 직격탄

"창조적 정치재편 함께해 달라" 공략 시동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민주당을 '구(舊) 체제, 낡은 세력'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월이에 나섰다.

특히 안 의원은 광주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듯

"호남에서의 낡은 체제 청산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또 여야 정치권에 반복과 대립을 새해부터 청산할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26일 새정추 설명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아arin 분열로 이어가거나 함께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하는 것은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구체제, 구사고, 구 형태의 산물"이라며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 기존 정치행태를 바꿀 것도 제안했다.

이는 자신의 신당 창당 추진을 '야권분열'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의원은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 "호남인들의 지지를 변화와 혁신, 수권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깊은 타성을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호남에서의 낡은 체제 청산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새정추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을 만

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선거와 차·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바탕진한 새 정당 모델, 바탕진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